

제 목	국 문	직업성 긴장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영 문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ain and psychosocial distres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장세진, 고상백, 강명근, 고상열, 차봉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Sei Jin Chang, Sang Baek Koh, Myung Geun Kang, Sang Yul Koh, Bong Suk Cha <i>Departments of Preventive medici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i>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장세진(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완료 예정 시기 : 1996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직업적 특성(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과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증상 수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장내에서의 사회적 지지(동료지지도, 상급자 지지도)가 직업성 긴장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가를 파악한다.</p> <p>2. 연구 방법</p> <p>①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강원도 W시 및 H군 지역의 사업장 근로자 1,211명(남자 837명, 여자 37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p> <p>② 조사변수 조사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소득수준, 근무기간, 이직횟수, 흡연상태, 음주상태)와 근무환경 만족도 및 직업적특성(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사회적 지지(동료지지도, 상급자지지도) 그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등이다.</p> <p>③ 분석방법 사회인구학적 특성, 근무환경만족도, 직업적특성, 사회적지지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단일변량 분석(t 검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직업성 긴장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비차비(odds ratio) 및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p>				

### 3. 연구결과

- 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남자, 낮은 연령, 미혼(이혼, 사별)자, 흡연자, 음주자들 사이에서 유의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다.
- ② 근무환경 만족도 및 직업적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근무환경 불만족 근로자, 높은 직무요구도 근로자, 낮은 직무자율성 근로자, 낮은 상급자 지지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긴장 근로자(높은 직무요구도 + 낮은 직무자율성)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 ③ 사회적 지지가 근로자들의 직업성 긴장 수준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사이에 관계를 수정시키지 못하였다.
- ④ 상관분석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던 변수는 직무요구도( $r=0.33$ )였으며, 다음으로는 근무환경 만족도, 연령, 결혼 상태, 직무자율성, 흡연상태, 음주상태, 상급자지지도, 동료지지도 순이었다. 이중 연령, 직무자율성, 상급자지지도, 동료지지도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회귀식에 포함시켰던 모형 1에서 유의한 변수는 연령과 흡연상태였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변량 중 약 5.1%를 설명할 수 있었고, 근무환경 만족도와 직업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이 추가된 모형 2에서는 연령,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근무환경 만족도, 동료지지도 등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 되었으며 이들 변수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약 24.4% 설명하였다. 모형 3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직업성 긴장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수정시킬 수 있는가, 즉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사회적 지지와 연결시켜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설명력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 ⑥ 직업성 긴장 수준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한 결과, 고긴장근로자(높은 직무요구도 + 낮은 직무자율성)군이 저긴장 근로자(낮은 직무요구도 + 높은 직무자율성)군에 비해 비차비가 3.72 (95% 신뢰구간 2.11-6.5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로 인한 비차비 감소 여부를 보았으나 사회적 지지는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 4. 고찰

이 연구는 비교적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젊은 연령자들로서 주로 생산직이나 기술직 근로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볼때 직업적 특성이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의 직무-통제 모델(job demand-control model)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직업성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자들이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인자로서 근무환경조건, 직업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단면조사 보다는 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